

성북구보건소 방문보건 시범사업

유호신(고려대학교 교수)

박민진(성북구보건소 가정간호사)

시범사업 목적 및 배경: 2003~2004년 보건복지부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5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방문보건사업 모형개발과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사업 타당성 검토.

시범사업대상자: 시범지역의 우선관리대상 순위는 첫째,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. 둘째, 등록 장애인 (뇌병변장애인중심) 가구. 셋째, 차상위 계층 가정간호대상 가구 넷째, 독거노인 가구 다섯째, 18개월 미만 영 유아 가구. 여섯째, 희귀·난치성 환자 및 가족. 일곱째, 기타 주치의 등이 의뢰한 대상자.

시범사업 운영방법 및 주요 사업 결과: 본 시범사업 결과는 구조 및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. 구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사업기획안을 수립하여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사업 운영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함.

본 사업사업의 장점은 첫째, 방문간호사 1인이 1개동 지역을 전담하는 지역담당제 수립 둘째, 방문보건시범사업소를 석관분소에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주민과의 지리적 접근도를 높인 점. 셋째, 5인의 가정전문간호사가 본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사회주민에게 가정간호서비스의 제공 타당성을 검토한 점 등을 들 수 있다.

당초 수립한 사업목표는 5개동 지역의 초점관리 대상 가구로 판단되는 1,152 가구 중 50% 수준으로 수립하였으나, 실제 사업목표 달성을 계획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 함. 구체적으로 언급하면, 4월부터 11월까지 방문간호관리 대상 가구는 총 1,562 가구를 등록 관리하

였고, 총 방문 횟수는 3,939 건 임. 따라서 본 등록 관리율은 5개동 지역 전체 가구 수의 3.9 %에 해당되며,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90.5 %(9.5%의 방문거부 가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100 % 수준 임),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31.6 %, 차상위계층 가구의 251.2 %, 영 · 유아 가구의 34.3%, 80세 이상 노인가구의 23.2 %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촍점 관리 대상 가구특성별 관리율(coverage rate)은 251.2 %에서 23.2 % 수준 임.

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주민 만족도는, 주변 환경과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영양, 운동, 음주, 흡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과 행태에 대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. 또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 수준 등 전반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, 기존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접근도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 됨.

기대효과: 방문간호사 1인이 1개동을 전담하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, 당초 관리가구의 목표 대비 실제 목표 달성을은 2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 옴. 이러한 예 비추어 볼 때, 본 사업이 지속 될 경우 보건소의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. 둘째,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이에 기초한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. 이로서 보건의료이용의 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관리가 양적인 실적 위주의 사업에서 진정으로 주민에게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. 셋째, 사업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접근도를 높이고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혀 주어 결과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. 넷째, 가정전문 간호사들로 구성 된 본 시범사업 결과, 가정간호대상자가 발굴되면 본 사업소에서 관리가 가능하여 가정간호대상자(Level I)부터 자가관리군(Level II)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.